

발행주최	인간개발	신조	주최
편집주최	국립중앙	조	발행
편집	중앙	위원장	총
편집	중앙	위원장	총

이름을 잘 잊지 못하면 비
을 때 물이 새나, 마음을
삼가하지 못하면 탐욕의 밤
이 들고 나온다.
(法句經·쌍요품 34절)

총장선거 교수대의원회 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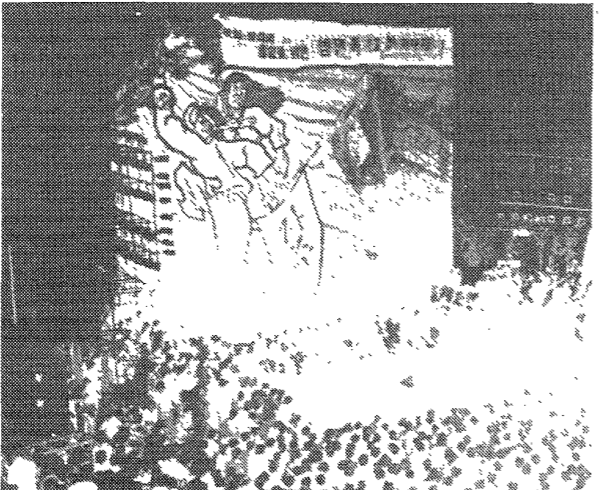
총장후보 10월까지 종전대로 선출기로 교수총회장 직무대리에 金長好교수 선출

서울캠퍼스 교수회 임시총회가 지난 21일 제2회 2배13명 중 과반수인 7명의 찬성으로 김장호(301)교수를 총장후보로 선출했다. 이날 서울캠퍼스 임시총회는 총장선거의 시기와 방법, 제2대 교수회 임원개선 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장호(토목공학)교수회의장 권한대행은 경과보고를 통해 '총장선거에 있어서 교수회의가 총장후보를 선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총장후보 선출은 오는 10월까지 종전방식대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교수대의원회에 일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2대 서울교수회의장 선출은 제2회 2배13명중 13명(위임 25명포함)의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 의결하는 58표를 획득한 김장호(국어교육)교수가 부의장에는 김준중(사회학)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이어 이날 상경, 통과된 교수회의개정(안)은 △총회와 협동대의원회를 서울-경주 별도 개최 △각 캠퍼스별 교수회의

장을 선출하고 합동대의원회에서 총회장을 선출한다 등이다. 이와관련, 이날 총회는 '서울 캠퍼스만의 임시총회에서 총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논의, 현행 교수회칙 제14조에 따라, 우선 서울캠퍼스 교수회의장 선임후 직무대리를 맡다가 서울-경주 합동대의원회에서 교수총회장을 선출해도 무방하다는 직접성을 확인했다. 교수회는 지난 5월 31일과 6월16일, 그리고 8월8일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총장후보선출 시기와 방법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한채 지난 8일에 '후보선출은 교수회에서 한다'

는 내용만을 재확인하는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으며, 다음에 이번 임시총회에서도 잠정적으로 10월까지 총장선거를 종전방식대로 하겠다고 발표할등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낳고있다. 한편 이자리에서는 제2대 교수총회장 金鎭眞(철학)교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범민족 대회 7천만 겨레의 통일열기를 판문점에서 확인하는 범민족대회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됐다. (판권기사 4, 5면)

6공, 학생운동탄압 노골화

본교생 8명구속... '반미구국 전선'매도

서울캠퍼스 윤남진(경행4)군을 비롯한 10명의 학생이 지난 7월10일 각자 집합에서 치안본부 소속 형사들에게 강제연행됨으로써 탄압을 주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도 노골화된 6공의 학원탄압은 본교생 10명을 수사하면서 대남전략의 북한지화 조직인 '반미구국전선'이라고 매도하며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2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런 사건은 방학동안 학생회계가 약한 틈을 이용, 활동가주체를 연행함으로써 2학기 민자방분쇄투쟁과 조동부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한 일관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전라관인 학생회 회의를 통한 학원장악 음모

로 풀이된다. 이번 연행된 학생들은 지난 7월9일부터 11일사이 불법연행되어 강정현(국문4)양등 2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구속됐다. 이번엔 구속수감된 8명의 학생은 황의수(불교4) 이규민(국문4) 백종민(국문4) 김인영(영문4) 강용원(무역4) 윤남진(경행4) 권미영(수교4) 김봉준(야간 경행4)군등 8명이다. 한편 이에 대한 학원탄압규탄 및 국보법철폐를 위한 실천대회가 지난 7월16일 학생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교수3명 정년퇴임

崔燦有-趙旺基-俞賢穆

서울캠퍼스 崔燦有(이과대학 화학과), 趙旺基(경상대 무역학과), 俞賢穆(예수대 연극영화학과)교수가 오는 31일자로 정년퇴임한다. 퇴임교수들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崔燦有=1950년 5월 연세대 화학과, '88년 1월26일~6월16일까지 기획조정실장, '89년 8월 본교 경제학과, '84년 1월86년 1월까지 경상대학장 역임.

△俞賢穆=1949년 본교국문과, '90년 1월~현재까지 예슬대 학장역임.

교수동정

▲龍喆元(영어영문학)=오 22일부터 91년 8월까지 Eastern Washington대 교환교수로 출국.

불기에서 귀중한 사상의 이념으로 중도의 의미가 많이 일컬어 지고 있다. 중도란 근화(근화)를 실현하는 지혜이다. 예를들면 한밤의 중간이 반이겠지만 그 중간점을 찾아내려면 한밤의 전체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中)을 발견하는 눈이 된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중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어느 만큼의 범위에 있는가 재량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전체관(全體觀)이라는 것이 중을 실현하기 위한 제1단계 지혜이다. 즉 그 사건, 그 문제를 올바르게 꿰뚫어 보고, 충분한 인식과 이해를 갖는 일이 중도의 첫째 조건이 된다.

보수 제가 간단한 것이어서 쉽게 중을 발견할 수 있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중을 발견하는 일이 쉽지 않다. 중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리는 일이 요구된다. 우리들의 현실 문제는 너와 나의 세계에서 전개된다. 세계도 국가도 이웃도 너와 나의 집합된 것의 총체이다. 우리가 모두 자기를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이익을 버리지 않고 이기심이 있는 경우 나와나의 중간을 분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다. 우리들이 중을 발견하려면 먼저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즉 중은

공평한 정신에서 생기는 것이다. 또 중이라는 것은 취하는 것이어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비판의 지혜이다. 투철한 비판과 지혜의 안목으로 중을 취하는 것은 화합의 바른 길이다. 이런 화합의 이념으로 자급의 세계 정세는 맑은 냉

되고 평화와 진보의 새시대를 개척하는데 주춧돌이 되고 있는 슬픈현실이다. 민족의 화합과 그 기초로 이루어야 할 통일사업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의외의 결탁하여 민족의 통일운동을 방해, 탄압하고 있다. 오로지 통일을 바라는 순수한 열원과 꿈으로 차있던 민족의 가슴을 외면한채 그들은 어떤 대화로 민족의 화합을 이룩해 낼수 있을까. 이번 범민족대회가 간교한 방해책으로 무산됨을 바라 보면서 장권의 이기심에 가득 찬 권력자들에게 화합을 기대한다는게 민족의 통일을 바란다는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수 있었다. 민족의 힘으로 부단없이 화해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꿰뚫어 보는 비판적 눈 화합의 바른길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如然

자매대학서 도서기증

문학 및 의학관련 서적 55권

본교 자매대학인 미국UCLA와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에서 문학 및 의학관련 서적 55권을 기증해왔다. 이번 기증 받은 도서는 UCLA에서 'The Male Journey in Japanese Print', 'T.S. Eliot and Prejudice', 'Mark Twain's Hannibal, Huck & Tom' 등 총25권의 문학관계서적, 레겐스부르크 대학이 'Studienreihe Deutsch als Fremdsprache', 'Fachdeutsch Medizin', 'Fachdeutsch in Naturwissenschaft und Technik' 등 독일어 회화, 의학, 기술 등 전공 관련서적 총 30권을 지난 10월과 4월15일자로 각각 보내왔다. 이에 앞서 본교에서는 우리나라의 불교관련 자료를 총망라한 한국불교전서 10권을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에 이들 대학에 보낸바 있다. 한편 본교는 UCLA와는 87년 2월13일에, 레겐스부르크 대학과는 87년 9월28일에 각각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석·박사 학위수여

오는 25일 총2백34명에게 '89년도 후기 석·박사 학위 수여식'이 오는 25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거행된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이종표(철학박사)씨등 박사 34명, 김영덕(문학박사)씨등 일반대학원 석사50명, 행정대학원 석사 54명, 경영대학원 석사19명, 교육대학원 석사29명, 정보산업대학원18명등 총 2백34명에 각각 석·박사 학위가 수여될 예정이다.

'東大文學賞' 작품모집

東國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주도해갈 참신한 文才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대학생 대상 '東大文學賞'이 매년 그 품격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문단의 올바른 토양마련을 위한 이文學賞이 대학지성 여러분의 열광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가장 권위 있는 大學文인 등용문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문학작품을 공모합니다.

◇모집분야
詩 부문: 50여이상
小說 부문: 60쪽 내외(2백자 원고지)
評論 부문: 60쪽 내외(2백자 원고지)

◇응모요령
응모자격: 全國에 소재한 4년제대학 在學生
제출기간: 1990년 9월24일~9월28일까지
시 상: 시 부...본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소설부...본상 20만원, 장려상 15만원
평론부...본상 20만원, 장려상 15만원
심사위원: 본회에서 위촉하며 임상적과 함께 발표
당선작발표: 1990년 10월24일자 본지 報上
작품제출처: 100-715 서울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작품발송에 '東大文學賞'응모작이라 朱書해 주십시오.
※제출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동대신문사

나래기획

주최: 나래기획 주관: 건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전국교육대신문기자연합회 협찬: 익기규정·중앙일보·코리아투데이·현대·사회사연구소

“대학인을 향한 나래의 첫걸음입니다.”

무더웠던 8월초 그 뜨거운 한여름의 맹비도 우리의 열기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90년 하계 전국대학신문 사진기자연수회 2박 3일간 50여 대학, 90여명 참가 매우 만족했다는 후평 대학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이제 나래기획은 대학문화를 향하여 소리없는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날의 아쉬움은 새로운 기약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아쉬움과 서운함은 또다른 기억으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미안함과 부끄러움 미안한 길을 헤쳐가기 위한 새로운 약속입니다.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박박한 일정속에서도 일관 성과를 맺고자 함께 노력해주신 대학신문 사진기자 여러분에게 이번 행사가 더욱 좋은 대학신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시간을 사진에 대한 애정으로 배우주신 감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 마련에 협조해주신 협찬사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애정과 편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서울 중구 필동 34-5 (주)나래기획 광고기획부 (전화: 779-2355)

나래기획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보도사진의 사회적 역할과 보도사진인의 자세, 대학보도사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Documentary와 엮은사진 등을 정리하여 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대학신문차원 및 월간지차원 등에서 관심이 있는 분은 원할한 주시편 교재를 제공해 드립니다.

'90 하계 전국대학신문사진기자연수회 -경기도 고양유수호스튜디오에서-

社 說

대학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일 본사 이진형사회부장 연행을 필두로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이 가시화돼 개강전부터 긴장감을 고조 시키고 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이미 서울시경에서 전담반이 구성되고 대학신문, 교지, 오리엔테이션자료집에 관련된 학생들을 조사해 45명을 검거했으며 아직 56명이 수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신문이나 교지 등에 대한 탄압은 89년 문교부 '5·6조치' 때부터 치밀하게 진행되었으며 올해 7월 '평정제실시비표'를 기점으로 더욱 극심해졌다.

가대학신문의 이념·성향을 분류한 후 점수화를 통한 편집장구속 및 관련자구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탄압유형은 언제나 일정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반향중에 이루어진 탄압인데 대학학보 사들이 몇몇이 아닌 대다수의 학보사였으며, 현대로 계속 조사가 진행중인 점, 시정차원의 수사, 통일·북한관련기사의 집중추궁, 단순한 기사만이 아닌 총학생회나 기타 회계제외의 관련성여부를 수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번 탄압은 방대한 규모의 대학언론 탄압작전이다.

다른 면에서는 독자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학생들과도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

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대학언론 탄압목적이 단순한 한때의 공포용이나 입막음용이 아닌 전체학생운동인영의 역량을 좌절시키기 위함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학언론탄압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대학이란 학문사상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자유와 학문탐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인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은 신성시되어 할 학원에 대한 죄악이다. 둘째, 언론사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귀를 막는 다고 해서 결코 모든 것이 은폐되지는 않는다.

이미 7·20선언이 기만이었다는 것은 범민족대회후산을 통해 증명되었다. 정부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조그만치라도 있다면 국보법철폐와 통일인사적방은 물론 통일의 열원을 담아내고 그것을 국민과 함께 하려는 대학신문들의 열의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1백만 청년학도 역시 대학언론탄압이 수사의 희생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학운과의 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시점에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총학되길

90학년도 1학기 학생회 활동을 평가해 보며 2학기가 시작된 현재 22대 총학생회가 얼마만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를 의문시한다. 심지어 동아에 총학생회가 존재하는가 라는 회의적인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며 2학기에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급적구구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걱정 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축전준비위원회는 방학중인 지난 17월 16일 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전대인 21대 총학생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전반적인 학생회 체계의 이원된 모습을 극복하지 못한 이번 총학생회 집행부는 단정되고 고립된 학생회의 민주집중제에 의한 자치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각 단과대의 의견들을 올바른 수렴하지 못하고 빈약한 사업내용으로 결국 운영위원회의 약화를 초래했고 이는 전반적인 총학생회 사업작업상의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또한 지금 본교는 학생자치기구뿐만 아니라 학교당국·교수·학생이 연적구조의 행성을 갖고 참여하게끔 되어있는 각 위원회 구조들이 학사상 존재할만한 거의 왜해위에 처해있다. 1학기동

안 총학생회는 학자투에 있어 거의 무관심했으며 이는 잠정적인 안정은 필지언정 동국을 더욱더 침묵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지해야 할 것이다. 흰 총학생회는 단지 22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총학생회는 방학동안 간부 수련대회를 갖고 대중에 근간한 2학기 학생회 사업을 이끌어 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더욱 기대가 되는 것은 총학 11월 선거로의 전환문제를 놓고 아무 이유없이 자연스럽게 귀결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간 총학생회 3월선거의 폐단들이 계속 지적되는 데에 올 하반기 사업의 올바른 정착과 내년 사업의 준비를 위한 총학생회의 결의수준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번 학기에 1학년학생들의 최고자치의회기구로써 총학생회가 굳건히 자리잡아야 한다. 오는 10월 초 예정된 총학생회는 그간 틀어지버린 학자투체제의 원상복구를 통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매번이 동국의 장래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원의 민주화와 자치화는 올바른 관점정립에서부터 시작됨을 총학생회는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바랄라하고 올바른 2학기 사업을 수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란 무엇인가

"우리농민 살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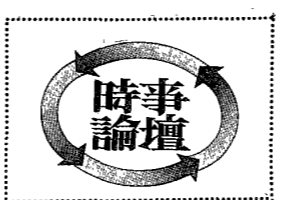


朱 宗 樞
(동국대학교수·농업경제학)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한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계획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홍역을 앓고 있다. 아무런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냉랭한 국제경쟁의 파고에 밀려난 우리 농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금년 말까지 타격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산물협상 주요 내용은 1997년까지 첫째 모든 관세조치의 철폐를 통한 농산물교역의 자유화와 둘째 국내 농업보조정책의 급속한 감축이다.

셋째 개발도상국에 한해서 농업개발정책이 허용되나 그것은 농산물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한다. (한국은 이미 개발도상국의 수준에서 졸업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협상내용이 별다른 조정없이 타결될 경우 경쟁력이 약한 농산물의 생



극심한 타격을 입게된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로 농산물시장이 더욱 개방되면 콩·팥·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가격은 작목에 따라 최저 65.3%에서 최고 85.6% 하락하고, 생산량도 22~35% 정도 감소될 것으로 분석

것이다. 그동안 우루과이 라운드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취한 협상태도에 관해서는 몇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여러 각도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여 협상을 지연시키는 한편 협상내용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일본은 농가의 생활수준이 도시근로자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은 뿐 아니라 농민소득이 85%에 달하고 있는데도 농업보호를 위해 농민을 따라 최저 65.3%에서 최고 85.6% 하락하고, 생산량도 22~35% 정도 감소될 것으로 분석

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EC나 일본등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나라들과 연대하여 앞으로의 협상에 슬기롭게 대처해 가야 한다. 우리가 이 협상에서 끝까지 내세워야 할 것은 역시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따른 최소한의 자급률 유지, 농업의 자연환경 보존상의 중요성등 이른바 농업의 '비교역적 역할'을 강조하여 최대한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시기를 늦추고, 우리에게 사활적인 중요성이 있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예외조치를 인정받는 일이다. 또한 현재의 협상내용이 상품교역의 자유화만을 논의하

고 있을 때에 대해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노동력 국제간 이동의 자유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는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고 이를 위한 예산도 농산물 수입관세를 적절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작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국압력에 늘려 '안방'까지 내준 처사 농업구조 개선으로 농가소득 보장해야

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한우는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93년부터 증식이 전면 중단되는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수입개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한다. (한국은 이미 개발도상국의 수준에서 졸업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협상내용이 별다른 조정없이 타결될 경우 경쟁력이 약한 농산물의 생

비해 85%정도에 머물러 있으며, 농민소득의 비중도 겨우 40%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압력에 늘려 제대로 대책을 갖출 겨를도 없이 실사 안방을 내주다시피 하였으니,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그동안 제네바에서 진행되어 온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은 미국과 일본 및 EC(유럽공동체)와의 이해관계의 대립

적 비대협안에 있는것이 아니라 품안의 충실함에 있다. 학교주변에 예제 비현실적인 학교발전방안을 만들고 예산지출도, 부디 학자투합의정신에 우선 충실해 줄것을 바란다. 그래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우리단원 91년말 이전 예정인 남산 수방사지리물매입, 기숙사의 여러 건물들을 세우는 생각을 꾸미고주고 싶다. 유기용 (법과대·법학과)

안정되도록 하고, 판매정책도 대폭 개선하며, 농산물 가격제도도 정비하여 무역자유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농업발전을 위한 재원은 '농업보조'와 같은 목적제의 신설로 조달하는 방안 또한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당면한 농업의 위기에 대해 해 나갈 슬기를 모을 때이다.

덩치크다고 좋은 학교 아는데 학자투 합의시켜 내실 기해야

방학중 어느 지방대학을 지나간 적이 있었다. 드넓은 학교규모와 높이 솟은 건물들을 보며 펜시를 부러운 생각만 들어 그냥 지나쳤었다. 개강후 학교에서 메일같이 '등산'만 하더니 그 학교의 전디발란 눈 에 섰었다.

다육이 제3캠퍼스설립계획, LA,방교마법면안등 학교당국의 학도발전안을 듣게 되면 더욱 그렇다.

위원회, 3차연석회의등 학교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거기 마련된지 2년이 채 안났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전 필확대·신규교수의 일방적 채용등 '학교발전을 저해하는'행 위가 시도되고 있다. 부득이 학교의 발전이란 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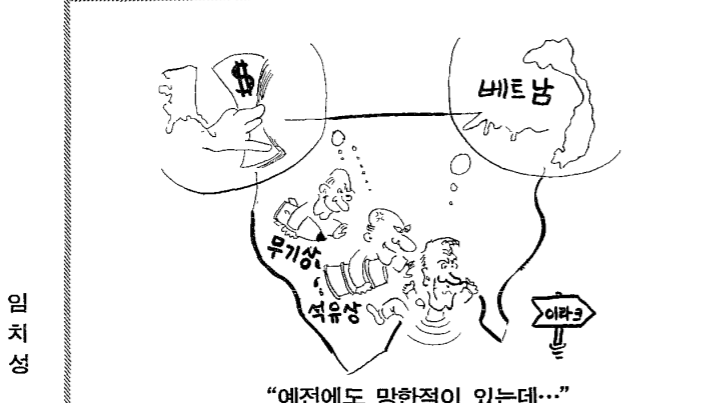
어쩌면 없었지않은 자기들 건을 보고 놀랐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일반사회현실의 비애이다. 어쨌든 확실한 동태생이 아닌 동태출신의 군비리르세 어려서 리 베풀을 들게된것은 얼마되지 않은 들건을 찾았다는 기쁨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서였다. 그리고 한해이라도 팔아서 용돈을 구하려고 했을법만,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후회했을 지도 모를 여러 후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윤재익 (법과대 법학과 88학번·군복무중)

경주캠퍼스 활성화시급
방학중 특강·시설확충필요

東 國 漫 評



임치성

"애전에도 망한적이 있는데..."

총장후보선거에 관한 우리들의 다짐

동국대학교 교수들은 지난 5월 서울과 경주에서 각각 총회를 열고 총장후보는 교수들이 선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서울캠퍼스 총회에서는 제단에 대하여 현재의 총장서리 체계를 속히 청산할 것을 추구하고 교수회가 총장후보를 선출하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의 마련을 대외원회에 위임하였다. 그러므로 대외원회는 자체에 총장후보 선출에 관한 기본업무를 재확인하여 교수총회의 위인 사명을 수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제단의 법적 권리를 부인하지 않는다. 교수회는 단지 제단이 임명한 총장 후보를 천거함으로써 학교의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제단에 의해 설정된 권위관계를 실현하는 주역은 바로 교수들이기에 양자는 상하 또는 대립관계가 아니고 권위관계를 양측으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어야 한다. 총장은 이들의 중간에서 서서 대학의 운영을 총괄하는 임무를 갖는다. 따라서 총장은 모든 구성원의 지지를 받아야만 대학의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가 이러한 원론적인 근거를 새삼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교부의 권유에 따라 국내 유수의 국 사립대학들이 교수회에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거나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 바람에 편승하려는 것은 아니다. 요즘의 학내사정이 우리들로 하여금 연구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도록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대학은 특히 최근들어 제단의 재정 지원이 없는 가운데 양적 팽창에 주력함으로써 우리대학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주지하고 속히 교수회로 하여금 총장후보를 선출하도록 하여 동국발전의 전기를 삼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과 의지는 확고하다. 우리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총장후보를 선출하여 동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동국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 매진한다면 동국의 미래는 매우 밝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동국인 모두의 배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1990. 8.

1학년 특별시험 실시

'90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조기졸업 및 초과학점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특별시험을 실시합니다.

다 음

1. 시험과목: 3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과목명	학점
공통필수	21102	국어강독 및 작문2	2
공통필수	22104	영 어 2	2
영역필수	41122	일반수학 2	3

2. 응시자격 및 과목

①가 격: '90학년도 신입생('81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서 '90학년도 1학년 부학생 포함)

②과 목: 3과목중 2과목까지

3. 시험일시: '90. 8. 25(토) 09:00-11:50 본관2층 201

교과과목명	고사시간	고사장	비 고
국어강독 및 작문2	09:00-09:50	201	본관 2층
영 어 2	10:00-10:50	201	"
일반수학 2	11:00-11:50	201	"

4. 전형료: 과목당 10,000원(경리과 수납)

5. 원서교부 및 접수

①기간: '90. 8. 20(월)~8. 23(목) 4일간

②장소: 교무부 및 이부대학 교학과

6. 합격자 발표: '90. 8. 30(목) 11:00 예정.

공 고

중앙교과과정 학생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17일 교무처장과의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학사운영사항등을 합의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수강신청 정정기간: '90. 8. 29~31일
수강신청이 누락되었거나 부득이 강좌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정정이 가능하다.

2. 교양강좌 계열별 이수학점 제한규정 완화
'89년이래 교양강좌에서 필히 이수해야하는 18~20학점(단 대학 차이있음)중에 6학점에 한하여 같은 계열 강좌를 이수 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함. (나머지 이수학점은 타계열 교양강좌로 필히 이수해야 함)

3. 전공필수 30개학과 확대
현재 교무처에서는 '88년 10월 전공필수가 확대된 학과의 교수·학생협의체(계정안을 접수중임. '90년 2학기부터 적용희망 학과는 8월29일 이전까지 협의체(계정안을 제출해야함)

*방학중 합의계정안 제출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본학과 사학과 독어독문학과 국민윤리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연극영화학과(10개학과)

4. 시험기간 설정
각 단과대 학생에게 시험기간 설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일임함.

5. 독후감 제도개선
중앙교과과정위원회와 학습부가 독후감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으로 결정사항은 추후 발표.

중앙교과과정 학생위원회

동국대학교 교수회 대의원 일동

교 무 처 장

중앙교과과정 학생위원회

"언론은 정권의 괴뢰가 아니다"

긴급진단 본사기자 불법연행과 대학언론 탄압사례

대학언론탄압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89년 공안정국하에서 문교부의 5-6조치가 발표되면서 구조적으로 시작된 대학언론탄압의 양태는 시기별로 급속을 그리기에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진전되었다. 이는 학생기자, 편집장, 필자의 구속을 통한 직접적인 탄압과 학보축이나 주간교수를 통한 간접적인 탄압, 그리고 5-6조치의 기초였던 학생신문-학교신문의 이원화를 통한 구조적 탄압들로 모습을 달리하며 대학언론의 발전대를 무너뜨리려 했던 조치들로 나타났다.

결과 지난해 2학기동안 하더라도 20여명이 넘는 필자와 편집장들이 구속되고 각대학에서 신문이나 교지제작에 있어 실무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다.

90년도 들어서는 전국주간교수협의회회의를 통해 발표된 문교부의 대

방침을 세웠다.

평정제는 약2달여 공백기간후인 지난8월2일 동대신문사를 필두로 각 언론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사물은 약7-8개사로 파악된다. 동대신문사의 경우 이진행(사회3)사회1부장이 8월2일 오전9시경 동교를 하다 구조서형사들에게 불법강제연행된 뒤 중부사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고 문제가 된것은 올해 9월부터 동대신문에 5회로 연재된 기획시리즈 '신대방트와 조국통일'중 통일방안과 미국의 영향에 대한 기사였으며, 조시기간동안 이미 작성된 판정표에 따라 문정하나하나마다, 심지어는 단어사용에 까지 수사를 받았다.

서울시경차원에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이는 담장검사까지 내정된 상태로 밝혀져 탄압이 더욱 조직화되고 확대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이 갈수록 조직화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속에서 미래의 민족통일과 민족해방을 논의해야 할 대학언론을 탄압하는 저들의 저의는 더 이상 '통일'과 '민주화'에 뜻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방화중에 있었던 불법적인 언론탄압을 고발하고 모두가 함께 싸울수 있도록 하자.

이런 평측관련기사로 추궁을 받고, 14일 142, 143호의 4-3항쟁기사로 인해 이성경기사가 연행되었으며, 총학생회와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

세종대학보에 대한 조사중에 건대신문 861호(4-3판권)의 조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분단조국 46년, 설움의 세월을 영광과 건설의 논리로 전진하려는 저들의 저의에 맞서 대학언론은 힘차게 곧은 펜을 휘두를 것이다.

전면수사로 대학언론 위축 음모 대학인 모두 스스로의 권리 지켜내야

학신문평점표작성으로 기사화 되었다. 문교부는 대학신문을 일부 운동학생들의 그것만 시간만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기관지이며, 공산주의이론과 체제, 김일성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붉은 신문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계급투쟁, 전교조활동 지원, 반미의식고취, 정부시책비판 등을 이유로 주간교수를 통한 학생기사의 활동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편집표를 만들어 탄압의 방법들을 조직화시켰다.

편집표의 기준은 440개 대학신문 중 개개피기에 다소 편파적이고 어색하다고 생각되는 239개 항목의 글을 추출해 분석한것으로 비판적 기술, 부정적기술, 파괴적기술과 단 순인지, 의식변화, 행동변화를 내용으로 접수하여 3월까지는 총학생회장, 6월까지는 주간교수, 9월 기준으로는 편집장을 구속할

외대학보는 8월8일 새벽5시30분경 이상필전편집장이 외대학보540호 '사회주의 철학논쟁과 북한사상' 기사를 이유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으며, 이과정에서 경희대대학보사와 시립대신문사에 대한 내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았다.

한편 연세대 연세춘추사는 8월10일 임정현전편집장이 기획시리즈 '주체사상에 근거한 문학이론에 대한 문제제기적 고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대문교사에 연행돼 조사 받고 풀려났다.

세종대학보사는 단순히 기사란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기자들의 활동 전반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8월4일 이정은편집국장인 기택수사를 당하고 다음날인 5일 연행을 하려던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왔다가 서초경찰서와 동부경찰서간의 혼선으로 들어갔다. 또한 '미리가는 95년

을해 신년호 '80년대 10년사'가 문제가 되었던 동덕여대학보는 이미 몇달전에 수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들어 편집장을 비롯한 부장급을 출두시켜 제소사를 가졌다.

이외의 대학신문사에서도 기사화된 탄압은 이뤄지지 않는다고는 담담경찰서로부터 열바-회유를 계속 받고 있다.

대학언론탄압에 대한 일련의 상황들은 대학신문에 국한돼 있지는 않다.

현재 밝혀진 교지탄압사례는 5개사에 관련된 필자와 편집장이 구속되었으며 기타 편집실은 내사중에 있다.

경희대 교지 '교향 35호'에 게재된 '남한사회구성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사회주의개혁과 정치권력'이 문제가 되어 배정철편집국장이 구속되었으며, 시립대 '대학문

쟁막분석 반 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의 실제

말로는 '통일' 행동으로 '반통일'

교류 선언한 노정권도 보안법 위반 전면폐지 아닌한 '통일'은 허구

가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시키기 위한 즉 민족민주세력의 대북교류를 제지하면서 동시에 독점체질의 이윤추구를 후원하는 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와같이 국보법 적용에 대한 차별적 배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키라는 요구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1948년 한시법으로 출판된 국보법은 1958년 자유당 말기 남북모두 전후 복구사업에 전념, 군사적 위 기감은 없던 시기에 정권유지용 위 기감 조정을 통해 여당위원만으로 개정국보법을 제정시키더니 1980년 국가보위임명회의에서 국민 적 합의를 도의시킨 채 반공법을 흡수 현행 대표적 악법의 모습을 갖게 된다.

나 이것 역시 목적의 유추-확대적 용에 따라 남용할 우려가 있다. 이 조항은 실제 우리의 학문-예술-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역사의 비평을 가져왔다. 얼마전 '반미 구국전선'사건을 통한 학생들의 대량구속도 역시 반미가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부-친양-이적단체구성에 바뀐 것도 이 조항에 의해서이다. 또한 21개 대학의 대학언론인 에 대한 내사와 6명의 학생구속은 국가보안법이 이미 대학에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논하기 어렵게 정도로 이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학문-사상등 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논리의 대립과 토론의 대상이다. 학문-사 상적 토론이 될 것들을 검사의 공소장으로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 다. 임의로는 교류와 통일을 떠들 면서도 손으로는 교류와 통일을 위 해 논의하고 복한을 방관했던 문목 사와 입수정서를 석방하지 않고 오 히려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열심히 고안했던 사람들과자 잡아 가두고 있는 것이다.

1948년 한시법으로 출판된 국보법은 1958년 자유당 말기 남북모두 전후 복구사업에 전념, 군사적 위 기감은 없던 시기에 정권유지용 위 기감 조정을 통해 여당위원만으로 개정국보법을 제정시키더니 1980년 국가보위임명회의에서 국민 적 합의를 도의시킨 채 반공법을 흡수 현행 대표적 악법의 모습을 갖게 된다.

그간 무소불위의 힘으로 통일을 가로막고 민족을 탄압하던 국보법은 1988년 청년학생들이 통일투쟁 과 변화된 국제정세(냉전의 해체와 평화공존)에 의해 반국가단체의 최 후의 보루(?)북한마저 민족의 동반 자로 재규정한다는 7-7선언을 강제 해 내어 법 제2조 '반국가단체라함 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기를 번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집단' 을 공허한 문구로 만들고 만다.

또 법 10조 불교지되는 국민들의 상호감시, 밀고체제를 조장하여 민족공동체적인 삶을 파괴하는 역활 을 맡고 있다.

여러 악법요소중 국보법의 뜻은 4천만 민족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입법할 수 밖에 없는 뜨거운 감자 로 만들어 버렸다.

결국 이 법은 국가보안법의 존치 와 대북한 경제교류의 보호라는 두

가장 신성해야 할 언론에 대한 탄 압은 현재제를 강경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유착되어 이루어지고 있 으며, 더군다나 학문-사상의 자유 가 보장되어야 할 대학에 대한 탄 압은 단순히 대학언론에 종사하는 학생기자들뿐만아니라 전체학생들 의 인식공유를 통한 대안이 있어야 할것이다.

더군다나 기사전반이 통일논의와 북한관련기사라는 점은 대학언론과 관련된 독자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줄것이다.

이것 역시 목적의 유추-확대적 용에 따라 남용할 우려가 있다. 이 조항은 실제 우리의 학문-예술-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역사의 비평을 가져왔다. 얼마전 '반미 구국전선'사건을 통한 학생들의 대량구속도 역시 반미가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부-친양-이적단체구성에 바뀐 것도 이 조항에 의해서이다. 또한 21개 대학의 대학언론인 에 대한 내사와 6명의 학생구속은 국가보안법이 이미 대학에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논하기 어렵게 정도로 이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학문-사상등 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논리의 대립과 토론의 대상이다. 학문-사 상적 토론이 될 것들을 검사의 공소장으로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 다. 임의로는 교류와 통일을 떠들 면서도 손으로는 교류와 통일을 위 해 논의하고 복한을 방관했던 문목 사와 입수정서를 석방하지 않고 오 히려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열심히 고안했던 사람들과자 잡아 가두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보법에 의해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과 복권, 그리고 국보법의 부목적 개폐가 아닌 전면 폐지는 시대의 역사의 요구이다.

이를 실천하는 게 그렇지 않거나 이 때를 민족-민주통일세력만이 반 민족적 파시스트인기를 가르는 것 대가 될 것이며 국보법이 전면폐지 되지 않는 한 한반도 남단의 땅 어 누곳에서도 진정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한 몸부림은 모두 '친양-고부-동조'가 되고 말 것이다.

(사회부)

(사회부)

인터뷰

대학언론에 대한 탄압이 날로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2일 본사 사회부장 이진행(사회학과-3)군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불법연행된 것을 시작으로 '외대학보'전 편집장 이상필, '연세춘추'전 편집장 임정현군들이 계속적으로 연행되어 정부의 탄압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며, 더구나 1 배1명의 대학언론인에대한 수사방 침이 밝혀져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사는 서울지역대학신문기 자연합회(서대기연)의 장모임 있는 서창훈(본사편집장)군을 만나 대학 언론 탄압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들어보았다.

△현재 대학언론 탄압의 현황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45명이 연행돼, 이중 6명이 구속돼 있고, 13명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특히 8월들어 본교를 비롯한 의

대-연대기자들이 연행돼 조사를 받 았으며, 연대와 한양대학교, 시립 대, 경희대신문등이 내사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근래에 들어 더 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학언론탄압의 양상은 어떠한 가, =89년 5-6조치이후 학교신문과



“탄압에는 투쟁으로 대응할터”

장기적이고 세련된 방식의 탄압들 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탄압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기자들을 위축시키므로 써 대학신문자체의 역량을 약화시 키려 하는 것이고, 둘째 부분운동 으로 발전하는 대학언론에 대한 탄

서대기련의장 서창훈 기자

(본사 편집장)

압은 곧 전체학생운동 탄압의 일환 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각 대학신 문사들이 다른 운동조직들과 연관 자의 구속등 3가지로 나눌수 있습 니다. 더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 학신문 평정제가 나타나는 것처럼

에 대한 조사만이 아니라 다른 조 척과의 연관에 대해 집중 추궁받았 다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앞으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방학중 일시적 탄압으로 여겨 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겐 각 학 교별로 총학생회 전체 학생운동파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 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신문사학 교, 방송국등 대학원론 선전일꾼 들이 '대학언론탄압'을 자신의 문 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함니다. 또한 이들을 언론협의회를 통해 조 직화해내는 것도 시급함니다.

또한 서울지역 대학언론협의회 건립준비위원회(서언협)에서 오는 23일 '대학언론탄압규탄대회'를 제 회학교 만해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이틀동안 학우대중들과의 연대투쟁 을 강화할 것입니다.

"어떠한 탄압이 들어와도 신문발 행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신문을 통 해 학우여러분과 함께 슬설 것입니 다"고 다짐을 밝히는 서창훈군은 "23일 집회에 많은 학우들이 참석 하려 충했습니다"며 말을 맺는다. (유기용 記者)

등록금 납부안내

1990학년도 제2기분 학부 재학생 등록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1990년8월13일(월)~8월24(금)까지
- 납부처

구분	납부처	대상 학생
캠 퍼스	조흥은행 및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전산처리된 고지서를 소지한 학생(전산으로 감액처리된 고지서 포함)
서 울 캠퍼스	조흥은행 동국대출장소 및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①장학금 수혜자로서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소지한 학생(등록금 고지서와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함께 납부처에 제출) ②부학생 및 재입학생
경 주 캠퍼스	경주캠퍼스 경리과	

- 기 타

- ①등록금 고지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오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지정 납부처에 납부하지 않을시 등록무효로 학적이 상실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③문의사항은 서울 및 경주캠퍼스 경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1990년8월

총무처장

일반 휴학원 접수

1990학년도 제2학기 일반휴학원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접수기간: '90. 8. 27(월)~9. 7(금)
- 장 소: 학적과(지도교수, 해당대학 교과과, 도서관 열람과 경유)
- 대상자: '90년 8월 현재 재학생으로서 가사 또는 개인사정상 휴학을 희망하는 자.
- 제출서류: 일반휴학원(소정양식) *학적과에서 교부함.
- 유의사항: 휴학기간은 1년간임(2개 학기)

교무처장

학생증 재발급 안내

1990학년도 2학기 학생증을 다음과 같이 재발급 하오니 해당 학생은 착오 없기 바랍니다.

- 재발급 대상: ①재학생증 분실자 ②부학생 및 편·입학생
- 발급 신청및 교부: 장학과
- 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①학생증 분실자:신청 접수시 재발급 수수료(1,000원)를 경리과에 납부후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②부학생 및 편입학생: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 발급기간: 1990년 8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위 발급기간 경과시에는 부학생이라도 재발급 수수료 (1,000원)를 경리과에 납부하여 신청.

학생처장

제28회 학술상 논문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매년 알찬 수확을 거둔 본 社 學術賞이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많은 동국인이 응모하여 동국의学风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人文科學賞: 본상 및 가작(본상 20만원, 가작 15만원)
社會科學賞: 본상 및 가작(본상 20만원, 가작 15만원)
自然科學賞: 본상 및 가작(본상 20만원, 가작 15만원)

◇응모요령

원고매수: 人文·社會·自然科學 3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50매대위(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소속학과 학술논문이어야함)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本社에서 위촉하며 입장작과 함께 발표
논문제출: 10월8일~12일까지 본사에서 접수
입상작발표: 10월24일 本紙 紙上

동대신문사

범민족대회 특별 인터뷰

"범민족대회는 무산 아닌 '연기' 된 것"

- ... 조국 통일의 열망이 전국을 휩쓸며 판문점을 향해 ...
- ... 끝없이 모아졌다.
- ... 20만명이 참가했고 6백여단체가 뜻을 모아 범민족대 ...
- ... 회를 준비했고 해외동포들도 일본, 미주, 유럽등지에서 ...
- ...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이와같은 남북한 민중들의 통일 ...
- ... 염원에 힘입어 '7·20담화'라는 기간제 조직극을 펴고 ...
- ... 판문점행을 무력으로 저지시켰다.
- ... 이번 범민족대회를 통해 국민들과 통일운동에 앞장 ...
- ... 섰던 범민족대회추진본부 집행위원장 이해학씨, 전대협 ...
- ... 학 추위장 권오중군, 해외북미주대표 홍정화·노소윤양 ...
- ... 학 만나 그들이 활동하는 있는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 ...
- ... 본다.

7천만 겨레의 통일염원을 한데 모으는 범민족대회 추진본부집행위 원장을 맡고 있고 현 성남 주민교 회복사 이해학씨.

이복사는 지난 73년 성남에 정 착, 주민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며 지역민주화운동에 투신, 몇차례의 옥고를 치르고 전민련 조국통일위 원장직을 맡아 통일운동을 적극 벌 여 나가고 있다.

그를 만나 범민족대회의 성과와 앞으로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밖을 내린 이번 범민족대회의 성과를 논다.

="민간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것이 죠. 정부도 통일은 국민과 협상할 요는 힘들다는 것과 민중들의 실제 를 인정할 것입니다.

북한-해외동포와 함께 민족공동 체 의식을 확인한 것도 큰 성과입 니다.

▲7·20선언이 발표돼 국민들이 적잖은 혼란을 하게된데 사실인데, 7·20선언이 갖는 의미는.

="7·20담화는 정부가 허락한 정 국을 주도, 영구분단과 내각제헌 과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조직극이 었습니다. 오히려 7·20선언을 통해 反통일세력은 현정권이며 그배후에 는 미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해준 계 기가 되었습니다.

▲범민족대회 추진과정을 정리한 다면.

="88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에서 제안, 올 3월

진행과정 이해하기



이해학씨

민간차원 통일운동 물꼬터 7·20 선언의 허구성 폭로

대회개최를 결정해 준비작업에 들 어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민 련만의 행사로 왜곡했지만 북한-해 외추진본부들이 모두 주체가 됐고 연련노조, 문화운동대, 노동자등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연인원 20만명, 참가, 전민련 2백60여 단명 6백여 단체가 조직되 으로 참여했습니다.

▲'범민족'남한추진본부 결의문에 서 '연방제방식의 통일국가건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부분은 논란이 됐으나 연방 제는 최선의 통일방안으로 인정받 고 있고 구체적방안은 북한과 차이 가 있으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 니다.

▲범민족대회의 한계와 오류를 든다면.

="대회의 틀어질 때 '범민족'을 참여 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청년학 생들이 다수를 이루는 것도 사실입 니다. 88, 89년 학생들 위주의 통일 운동에서 일반 민중단체들이 통일 운동에 참여케 된것은 대단한 성과 입니다. 일부에서는 '성사위주', '상 충교섭' 위주의 사업을 했다고 참 추분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조국통일의 뜨거운 열기를 반 민자강부쟁에 어떻게 연결시킬지.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은 서로 대립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UN단 독가일, 내각제헌연호모에 맞서 통 일운동의 물꼬를 터 경련 스스로

한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범주본의 앞으로의 입장은.

="범주본을 구성하는 단체들과 논의할 계속해야겠지만 먼저 국민 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산가족찾 기, 장기수석방, 추석성묘단구성등 을 추진해 민간교류를 실현하겠습 니다.

▲이번 범민족대회에서 느낀것이 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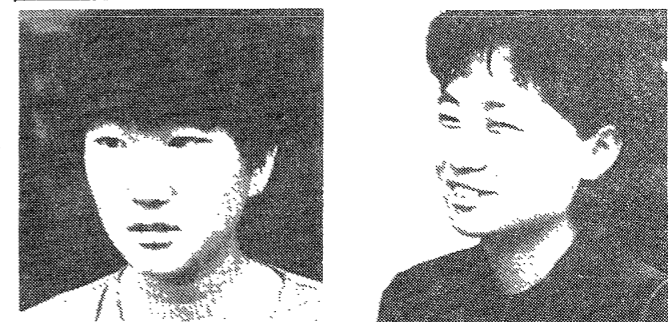
="분단의 이음을 다시 확인했고 그야말로 전국민적인 통일열기에 스스로 놀랄정도였다.

1995년 분단 50년째 되는해를 통일원년으로 맞기위해 통일운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철)

러보고 통일을 막는 궁극적 장애요 인은.

="미국이 개입해 있기때문이라 단언합니다. 통일문제의 논의는 남 북쌍방의 자주적인 논의이어야하 는데 사실상 논의주도권을 미국이 쥐 고 있습니다. 남부조국은 북부조국 을 '적'으로 규정하나 북부조국은 남부조국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습



홍정화양

통일막는 장애요인은 미국 해외에서도 통일위해 힘쓸터

="평화적재보다는 국제연대를 얻 는데 주력했습니다. '국제평화대행 진'에서는 가능كما 북부조국 등 포들의 통일외지를 확인할 수 있었 습니다. 평양행진에는 질서유지를 해야하는 경찰마저도 일대표를 보 자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평창, 범민족대회등 양측을 들

니다. 반미감정에 있어 북부조국은 대상 이 미국정부이지 미국민중들은 아 닌 것입니다.

▲범민족대회 해외범주본의 입국 상황은.

="남측에는 비자가 안나와 우리 들이 왔고 북측엔 대표단 40명, 관

전대협 학추위장 권오중군

7천만 겨레의 나라를 이끄러는 마음에서 비롯된 범민족대회가 통 일의 걸림돌을 훌쩍어 버리고 그것은 남은 채 '연기'되고 말았다.

범민족대회의 성사를 위해 앞장 서서 일한 전대협1기 조국의 평화 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 원회(이하 학추위)위원장 권오중씨 (연세대총학생회장)를 만나보았다.

▲학추위가 만들어진 경위와 앞 으로 할 일은.

="일시적이고 들끓던 통일운동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추위는 앞으로 계속 존속하게 될 것이며 하나의 조직단위, 투쟁 단위로써 통일의 그날까지 학생운 동에서 통일운동을 전담하게 됩니 다.

▲7·20선언에 대한 평가는.



권오중군

="시기극일 뿐입니다. 많은 얘기 들이 나왔지만 국보법 철폐, 양심 수 석방, 콘크리트 장벽 철거 없이는 한반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 합니다.

7·20이 제시한 테두리 안에서 이것의 허구성을 드러 내고 이를 경험한 현정권의 허 락여부가 아니라 통일은 오직 7천 만 겨레의 통일운동을 통해서 이루 어진다는 것을 알려나가야죠.

▲이번 범민족대회에 대한 평가 는.

="상반기에 노획되던 현정권의 분단영구화, 장기집권 음모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고 봅니다. 학생운동에서 견제차 이를 극복하지 못해 현 정권에 끌 려다니는 느낌입니다.

범민족대회가 무산되었다고 하지

통일은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교훈 얻어 학추위, 학생운동에서 통일운동 전담

그러나,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겨레가 '통일은 오고야 말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갖게 된 것은 작은 작은 것이지만 할 수 있죠. 나아가 이를 뛰어넘는 발전 즉, '통일은 내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은 것 도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통일운동의 전망 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민중 스 트가 통일외지를 안고 싸워 나가 는 겁니다. 1천개과 교류와 같은

유리한 투쟁을 우리들의 생활공간 인 학생회에서부터 거치지 않고 지 속적으로 벌여나가야겠습니다.

▲정년학도에게 하고 싶은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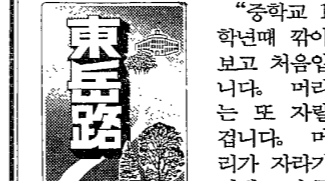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책임져 야 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통

일의 적을 명확히 인식하여 현 정 권·미국등 분열주의 세력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기 바랍니다.

결국 통일을 이루는 근간은 남북 한이 제언이나 조건없이 만나서 서로의 염원을 확인하고 결의를 다지 는 것입니다.

이에앞서 군축,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가 선행돼야 하겠 죠.

(김영란 記者)



홍정화양

“중학교 1 학년에 짝이 보고 처음입니다. 머리 는 또 자랄 리가 저라기 전에 교수중

개체용을 꼽습니다”

“머리를 깎으니까 시원합니다. 교수공개채용도 시원하게 됐으면 합니다”

지난 20일 오후 8시 총장실에서 는 불교학과 학생명이 기민적인 교수채용에 항의하며 머리를 삭 발하고 저마다의 감회를 말하고 있었다.

총장실이 접거된 지난 16일 총 장이 불교학과 학생들에게 인사 위원회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 자 이에 학생들은 인사위원회결 정무효화, 88년 교과위원회의사항 이행등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 점거했었다. 점거 이튿날인 17일

에는 학교당국과 학생들이 논란 을 벌이는 과정에서 “학생들 이 틀어박어”, “학칙대로 징계하겠 어”라는 말이 오고갈 제물이들

집어던지려는 모습도볼수있었다. 불교학과 학생들은 지난 88년 중국불교전공자 조빙을 교수·학

장외평가로 학교당국에 제출했지 만 학생들과는 달리 이번 교수채 용은 총장의 낙점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불교학과교과위원장 문병렬(불 교·3)군은 학교측의 일방적 낙점 채용에 대해 “학교교수님들이 한 후보에 만장일치를 보지못해 과 에 이점이 있다고 학교측은 변명 하지만, 총장이 교수 채용에 이 의가 있으면 해당과에 제심을 요 청해야지 독단적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한다.

동국대에서 본관으로 총장실을 옮긴지 불과 60여일 만에 또다시 총장실이 점거되면서 2학기 학내 움직임이 주목된다.

총장실과 불교학과는 동국의 한 상징일 수 있다.

세월을 못뚫고 다시 점거된 총장실, 3년을 끌어오고 있는 교 수채용문제, 사제가 맞서는 총장 실은 진정한 주인을 언제 찾겠지 의문이다. (남철우 記者)

생활에 풍요를, 마음에 풍요를

“책에서나 보던 모국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찮은 것이라고 느껴지는 책들도 한사람, 한사람을 묶어주는 깊은 정이 됩니다

두산그룹은 공산권 책보내기운동을 통하여 공산권 우리동포들에게 조국과 우리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학술지원사업, 교사해외연수, 장학금지급 등의 사업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모두의 큰 내일을 열어가는 작은 노력들입니다.

공산권 우리동포에게 책을 보냅니다. 80년부터 두산그룹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산권 책보내기운동에 함께 하실 분은 두산그룹 민정학술재단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주소: 서울로 4가 13번지 연명빌딩(우편번호 110-124) 전화번호: 763-8151



두산그룹

●중국 연변 “조선족 마을 정형연구소” 소장인 문정형씨에 - 지난5월 모국을 방문한 문정형씨는 그곳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일과와 정서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교과위 합의내용 백지화 위기

학교당국 일방적 전필확대 학자투원칙 와해 학생회 중앙교과위 사실상 아무런 대응못해

불교학과 교수채용 문제로 난항거듭

교과위 합의문이 백지화 위기에 놓여 있다. 선진적 학문의 습득과 학과목의 자유로운 선택을 목적으로 '교과목 전면개편' '전공선택 확대' 등을 위해 지난 88년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2학기 개강과 동시 30개 학과에 대한 전공필수과목확대 결정은 학자투원칙 파기음모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결정이 88년 10월 전공필수과목 확대를 내용으로 한 교무처의 공문에서 구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학

교당국이 장기적이고도 치밀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는 대학의 교육내용이 전공과 교양 자유선택을 균형있게 학업성취의 배려가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전공필수의 확대는 전인교육의 대학 학문 영역이 축소와 필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앙교과위에서 학교 당국의 사전포섭적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지도의 무능력을 보여준 것이므로, 비록 방학중에 10개학과에서 확대결정을 폐지했지만 단 위학과의 고립적투쟁의 결과였

다는 점에서 대중적 연대투쟁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 불교과, 일문과, 영문과, 행정학과 등 6개학과에서 신규 교수초빙문제가 지난 방학중 대두되었으나, 이중 불교학과와 행정학과는 전공필수라는 이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불교학과와 영문과, 교수채용에 있어 교수학원이 평가하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이 이를 무시함으로써 학생회가 반발한 것이다.

이는 학생회가 올린 서류중

후보자의 순위가 매겨져 있다는 이유로 반송시킨 것이라는 지 추측된 후보에 이의가 있음 해당학과에 제심을 청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이 2순위의 후보자를 낙점한 것은 학교당국이 교과위 존재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불수 있다.

이에 각 교과위주체들은 지속적으로 합의문에 근거한 실질적 신규교수선출권취투쟁으로 사립의 내용을 채워야 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取材部)

학교로 다시 환원할 것을 교수 학생간의 잠정합의를 거친 상태로 이후 합의문작성과 학교측에 신장이 남아있다.

그러나 공대 전학과와 사범대, 농대, 사과대 일부학과는 현재까지 교수 학생간에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당국은 파에서 교수 학생간에 합의도 이루어지는 전공필수확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오는 29일까지 본교 학술부(본관 1층)에서 환원합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에도 합의되는 파에 대해서는 환원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경희대에서 양심수석반, 국보법철계를 위한 집회에서 구속자 가족인 어머니가 아들에게 양심수 석방 머리를 매어주고 있다. (사진·글=김영란 기자)

부당인사 조치 철회 요구 노조 공정성과 절차무시 크게 반발

지난 16일에 있었던 직원인사에 대해 노조측이 인사의 공정성과 행정절차를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총21명(서울캠퍼스15명 경주

캠퍼스6명)이 이동된 이번 인사는 지난 4월7일에 발효된 개정사립학교법에 따라 중앙의 제정으로 재단이사가 발령한 것인데, 이에 대해 노조측은 "지금까지의 관례인 직원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파행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격분했다.

노조에서는 이와관련, 지난 20일 오후5시 동국관(L301)에서 조합원 1백30명이 모인 가운데 비상총회를 갖고 "이번 인사조치는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며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김종철군 징역2년
결심 오는 30일 예정

영문과 학생회장 김종철(영문3)군이 지난 6월9일의 민주학생계승 실천대회에서 화형병 윤반중 경찰에 연행구속돼 지난 17일 공판에서 징역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김군의 최종판결은 오는 30일 있을 예정이다.

徐충무위원장 재선출
徐義玄(54)이 지난 6월 22일 오전 10시 불교회관에서 조계종 제26대 추무원장에 선출되었다.

본사 사회1부장등 연행조사
지난 89년의 문교부 5·6조치 이후 또다시 대대적인 대학언론탄압조치가 자행되고있다. (관련기사 3면)

본지 3월호에 게재된 '신대방트와 조국통일'시리즈를 문제삼아 3일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한편 지난20일 실천대회를 갖고 학생들은 사발을 하면서 민주적 교수공채를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가졌다.

이날 오후8시에 있었던 3차회담은 이천호에 의해 합의점을 이루지 못해 결렬했다.

본지 3월호에 게재된 '신대방트와 조국통일'시리즈를 문제삼아 3일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통일, 민주화 선행이 우선 8·15기념 '민족통일과 불교' 심포지움 열려

8·15기념 심포지움 '민족통일과 불교'가 지난13일 오후2시부터 7시까지 학림관(소강당)에서 민족 자주 통일 불교운동 협의회 주최로 학생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본교 延基(법학)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움에서 한국교수전지연합회장인 본교 轉相(법학)교수는 "민족통일과 불교"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사회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민족

의 의사가 존중되는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족통일촉진 중앙협의회 정책실장 남준씨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의 변화"란 주제발표에서 미·소에 의한 분단의 고착화, 미·소 대립과 관련된 남·북한 대립의 문제, 미군수산원의 수호문제등을 언급했다. 이어 근·근불교 연구소장 범정수님은 "통일운동의 불교

사상적 접근"에 대해, 통일행진위원회 송연택씨는 '남북불교교류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심포지움 8·15기념 불교문화공연 '아! 통일 그날이 오면'이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의정=지선스님)주최로 지난12일 오후3시, 7시 2회에 걸쳐 학생 1천명과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에서 열렸다.

전필 확대 문제 10개과는 전선 환원

2학기 개강과 더불어 30개학과에 적용됐던 전공필수확대문제가 다시 제기돼, 방학동안 이를 환원시키는 파가 일어나고 있다.

불교학과, 국문과를 비롯 총 3개학과에 걸쳐 전공필수가 거의 3과목(9학기 9시간)의 확대된 사항에 대해 인도철학과를 비롯 10개학과(인철, 국문, 영문, 독문, 일문사, 국인문과, 수, 물리, 영문영화)에서는 교수 학생간 합의를 거쳐 방학중 확대됐던 전공필수확대를 다시 전공선택으로 환원할것을 학교측에 요구함으로써 지난 8월20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철학과는 경우 30학적으로 확대됐던 전공필수를 21

총학 징계조치 유보 감사특위 재감사 실시키로

제22대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철신·사회대 대외원장)는 4·5월 감사특위 추천감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유보하고 재감사하게 된다.

이런 징계유보는 감사특위가 지난달 12일 경주 대우호텔에서 예산·사업감사를 실시하여 22대총학에 예산·내부, 총학운영위의 사업수행부채등을 들어 경고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이 없자 공개명서를 제차 요구하고 이것이 안일시 징계조치를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감사특별위원회는 △오각회 예산(학생회비·교비회계·술진출비)인출 무기한 중지 △추진재감사실시 △총학보신인안발의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징계조치는 지난5일까지 공개명서, 1학기사업평

빙신(?)의 일각
○...부러지지 않고 강철보다 강한 펜을 가진 '빛의 기사'들이 '대학신문 평정제'라는 영웅담 노가리정권의 탄압에 때마침 끈을 치르고 일어난다...

제계전복상향과 반미감정을 고취시킨다는 이유를 내걸고 있다며 대학신문 편집장들을 비롯한 기자들을 불법연행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들어가기 위한 빙신(?)의 일각이 아닐까...

이 주장은 통일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성의를 보이고 있는 행정부속(?)이 요즘 주창하는 구호중에 하나라고,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대북한제의를 통해 남한측을 범민족대회기간 동안 개방하고 남북한 동포들이 오갈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을 들뜨게 했는데, 우리 7월만 겨레의 한라당이 되리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져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옛말이 요사이들이 실감나는데, 중동사태를 두고 하는 말로 이로 인해 죽어가는 것은 개발도상국들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UN을 통해 '다국적 군대'라는 빌미를 만든 미국의 전략은

무대도 한번 실감나게 써내려 갑니다.
양기 언론관은 이제 그만
○...뭘 묻는 게 뭐 묻는게 육탄대는 속담이 가장 신문지상을 통해 전개됐고, '북선문사기 아로바이트' 대학의 미담기사를 냉철하고도 이성적인 판단없이 감성적 접근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며 타신문사를 비판한 기사를 게재했으나 그

6·29에 속고 7·20에 또 속은 민중 분노 '활화산'

라 굳게 믿었던 본회전투대자, 그러나 결국은 수마당이 되고 말아 허탈하기만 한데... 6·29에 한번 속고 이번 7·20에 완전히 속은 우리 청년 전사들이여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불같이 시켜 우리도 한번 활화산이 불세다'

반도를 두조각으로 갈라놓은 UN의 날치기 신탁통치결의의 안 통과가 때마침 미국의 실체가 또 한번 실감나는데... 분노의 광과 조란을 양산에 후세인에게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고르비모습이 선한 가운데, 본회전

기사까지 사실과 달라 문제가 된것. 이에 '북선문사기' 연두에 두고 '그'고 말하는 양기 언론관은 이제 正論筆의 참언론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라며 일침.

수습기자 추가 모집

大學言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본사에서 어둡고 혼돈의 時代를 헤쳐나갈 意氣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서울 및 경주캠퍼스 ○ 0명
②모집자격: 1. 學生 在學生
③모집분야: 일반 및 사진기자
④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신 1통(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함)
⑤원서접수: 서울 9월 20일 오후4시까지
경주 9월 13일 오후4시까지
⑥사실일지: 서울 9월 20일 오후5시
경주 9월 13일 오후5시
⑦사실과목: 1차 필기-국어·상식·작문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 추후공고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프랑스어

9~10월 학기 개강
●개강: '90. 9. 3(月)
●접수: '90. 8. 20(月)부터

●9월강의: 9. 3(月)부터 4주간
(10월 첫주 1~5일강은 추석휴가로 강의없음)
●10월강의: 10. 8(月)부터 4주간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Adultes

알리앙스프랑스어

●mauger I, II, sans front. I, II, III
●archipel I, II, III, bonne route II
●avec plaisir, france act, VI, EEO
●traduction, thème, 문학, 문화강독
●conversation libre, 시사배너

seoul-centre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555-1125, 1126 (강남)

PUSAN: 622-3601 KWANGJU: 526-0189
TAEJU: 22-4630 DAEJON: 254-3478

alliance Française
한·韓文化財團

영어회화 정복의 MECCA
ELS 자매학원

Si-sa ECC
영어회화 전문코스

English Conversation Center

교수진 전원 미국인 Native Speakers
전강의실 첨단 Video/Audio 교육용새화

●1일 2시간, 주5일, 4주단위 수업
●강종교는 강남 ELS, 회화전문코스는 경북 ECC
●Tuition은 일반학원 수준, 교육의 질은 국내 정상급
●다양한 학습 서비스, 풍부한 학습 편의시설과 공간

ECC Session Calendar

제34기	9월 17일	9월 3일부터
제35기	10월 22일	10월 8일부터

●강의시간
7:00~8:50
9:00~11:00
10:00~12:00

오전반
2:00~4:00
4:00~6:00
6:00~8:00
8:00~10:00

●미국 Language School과 같은 학습 분위기
등록장소: Si-sa ECC 입학안내실 (파고다공원 뒷문(사)서영서빌딩3층)

(주)시사영어사 부설
Si-sa ECC
강북 시사영어사 외국어학원
상당전화: (277)6812~4

'90 최신간

TOEFL 600
전략시리즈

대학원 진학, 취직시험, 유학시험
각종 고시준비는 이 6권으로 완결!

전 6권

1권 경향과 공략법 김명기 총/국문/4,000원 (국문)
2권 LISTENING 전략 유정원 총/국문/4,000원 판매중!
3권 문법/STRUCTURE 전략 판재홍 총/국문/4,000원 판매중!
4권 WORD POWER 전략 윤찬우 총/국문/4,000원 판매중!
5권 READING 전략 박정일 총/국문/4,000원 판매중!
6권 IDIOM 전략 정영진 총/국문/4,000원 판매중!

TOEIC 800
대책시리즈

취직과 승진을 보장하는 '90년향 최신간!

전 6권

1권 경향과 공략법 김명기 총/국문/4,000원 판매중!
2권 LISTENING 대책 윤정원 총/국문/4,000원 (국문)
3권 문법/STRUCTURE 대책 판재홍 총/국문/4,000원 (국문)
4권 WORD POWER 대책 윤찬우 총/국문/4,000원 판매중!
5권 READING 대책 박정일 총/국문/4,000원 (국문)
6권 IDIOM 대책 정영진 총/국문/4,000원 판매중!

전국 서점에서 절찬판매중! (주)시사영어사 문의: (대표)594-6767 274-0609 (입부)275-5330

